

홋카이도 의료비상사태선언

도내에서는 변이코로나의 영향도 있어 코로나19의 신규 감염자 수가 5월 13일에는 과거 최다인 712명에 이르는 등 도 전체 각지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역의 기간병원 등에서는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며, 특히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입원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외에도 부상 치료나 구명 구급 등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 왔던 의료도 받을 수 없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즉, 현재 홋카이도의 의료가 위기 상황입니다.

의료체제의 붕괴를 막고 도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 전체에 의료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의료를 지키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음을 준수해 주십시오.

그동안 부탁 드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손 소독, 사람과의 거리 확보는 물론, 지금은 특히 다음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한 외출은 하지 않는다.
- 특히, 주말에는 외출하지 않는다
- 외출할 경우에도 오후 8시까지

2021년 5월 15일

홋카이도 지사	스즈키 나옴치 (鈴木 直道)
홋카이도 시장회 회장	야마구치 고타로 (山口 幸太郎)
홋카이도 정촌회 회장	다나오 다카오 (棚野 孝夫)
홋카이도 의사회 회장	나가세 기요시 (長瀬 清)